

군산명산시장 투어 호응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 간 어린이 체험 공간으로 변신
국수·피자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중… 600여명 다녀가

군산명산시장이 요리체험 및 시장투어 행사를 이어오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명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단장 이한익)은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총 38회에 걸쳐 요리체험 및 시장투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매주 월·수요일은 국수만들기, 화·목요일은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어린이 대상 체험행사인 관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와 손소독제 사용 등에도 더욱 신경을 쓰는 등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치자와 비트로 색을 낸 국수반죽을 직접 만져보고, 제면기를 이용해 면을 뽑는 국수만들기 체험과 피자 반죽을 직접 늘리는 등 시장 내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토핑을 이용한 피자 만들기를 통하여 오감만족 체험을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은 만들기 체험 후에 편발리자협동조합 '이야기 할머니'의 안내로 견어물 가게·닭집·아재가게·생선가게 등을 돌며 상인들로부터 산, 바다 등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와 상품유통에 대한 이야기로 생생한 경제교육을 듣고 있다.

또 명산시장 우물거리에서는 시장을 돌며 상품설명을 들은 것을 퀴즈 맞추기를 통해 교육과 재미를 더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번 체험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관계자 및 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참여자들은 약 90% 이상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체험행사가 지속되길 기대하고 있다.

명산시장상인회는 명산시장만의 특화메뉴 및 근대문화유산이 묻어나는

시장투어를 지속 개발해, 지역 내 네트워크 활용이 강점인 편발리자협동조합과 어린이들의 문화체험 프로그램 발전에 다양한 피드백 제공이 가능한 군산어린이집연합회와 지속 협력해 명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체험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전통시장이 한결 가깝게 느껴졌을 것이다”며, “명산시장 체험형사업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프로그램 보강에 만전을 기하여 어린이, 학부모 모두 전통시장에 대해 더 잘 알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명산시장이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약 600여명을 대상으로 총 38회에 걸쳐 요리체험 및 시장투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상품권을 카드처럼... '군산사랑카드' 출시

사용처 대폭 확대... 모바일 앱 'chak' · 농협은행 신청

군산시는 한가위를 앞둔 23일을 시작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카드처럼 쓸 수 있는 '군산사랑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군산사랑카드는 선불형 체크카드 형태로 모바일 'chak' 앱이나 농협은행에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군산사랑카드는 모바일로 충전한 상품권 금액만큼 카드로 쓸 수 있으며 종이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점 중 카드단말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기존 신용카드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군산사랑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이 아닌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해당금액이 출금된다.

이처럼 군산사랑카드는 모바일 가맹점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점에서 일반 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대폭 확대되는 장점이 있으며, 모바일 결제 방식에 익숙하지 않는 장년층이 애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사랑카드는 기존 군산사랑상품권처럼 10%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혜택과 국세청 기준 전통시장 등록 가맹점을 이용하는 경우 2% 추가 적립 혜택까지 있어 더욱 알뜰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군산사랑카드 출시 기념으로 군산사랑카드 신청자 선착순 200명에 한해 군산사랑인센티브 2만원 적립이

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군산사랑상품권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할 계획이다”며, “군산사랑카드를 통해 이번 한가위도 알뜰하게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사랑카드는 핸드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하고 군산사랑상품권으로 회원가입 후 앱에서 신청하는 경우 7일 이내 원하는 수령지로 등기발송되며, 농협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 가능하다.

/군산=한경봉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시, 장점마을 환경개선 팔견어

주변 농경지에 코스모스 꽃밭 조성... 주민 마음 치유나서

익산시는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 받은 주민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합리면 장점마을 인근 금강농산 자리와 주변 농경지에 코스모스 꽃밭을 조성했다.

이 곳은 저수지 주변을 따라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 가을의 정취를 더해준다.

또 환경재난으로 고통 받은 장점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꽃동산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사업은 오염된 토양이 제거된 금강농산 부지와 주변 농경지에 코스모스 꽃동산 조성해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장점마을 종합대책 발표 후 주민 건강과 밀접한 환경오염물질 제거사업을 우선 추진해 마무리했으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

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옛 금강농산 내부에 매립된 폐기물과 인근 저수지와는 등 주변에 오염된 토양 제거사업을 완료했다.

금강농산 부지 내 매립폐기물과 오염물질이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공장부지 인근 저수지와는 등의 오염 토양을 전량 제거했다.

또 양질의 흙을 이용한 복토사업 추진으로 친환경·유망농지를 조성해 친환경마을의 명성을 되찾아가고 있다.

이 밖에도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등을 완료했으며 진료시설을 포함한 주민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1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오는 12월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청년 일자리 매칭데이' 호응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청년 취업을 위한 일자리 매칭데이가 열리며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동안 군산시 청년탈(청년·창업센터)에서 지역의 19개 중소기업과 청년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지역경제가 그 어느때 보다도 침체된 가운데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연계 매칭해 청년 일자리를 제공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지원자들의 발열체크는 물론, 시간대별로 면접시간을 조정 배분하고 마스크 쓰기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

칙을 철저히해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번 매칭데이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지역정착형인 '만나보중소기업 청년연계사업'으로 선발된 청년들은 지역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며 향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형성 등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자립기반의 기회를 얻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지역경제 불황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 할 계획에 있다”며, “특히 2021년도에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응해 청년 일자리정책을 추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원광대 동북아다이멘션연구단, 한일공동 콜로키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단 HK+동북아다이멘션연구단은 일본 관동대지진을 둘러싼 조선인 학살 문제를 되짚는 시간을 갖는다.

원광대 HK+동북아다이멘션연구단은 오는 24일 '학살의 기억과 망각의 역사-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한인)'을 주제로 한일공동 콜로키움을 연다.

이번 콜로키움은 1부에서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을 주제로 재일 한국인 오충공 감독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강취진 손톱자국-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1983년 제작)'이 상영된다.

부에서는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에 관한 전문가로 한국독립운동사와 재일한인사회사를 연구하는 강덕상 일본 시가현립대학 명예교수와 이규수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특임교수의 대담이 진행된다.

강덕상 교수는 지난 1982년 경남 함양에서 출생해 어린 시절 일본으로 이주해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메이지 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강 교수는 히토츠바시대학과 시가현립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는 시가현립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전문가간담회
폐철도 활용방안 논의

군산시는 군장산단 인입철도, 장항선 복선화, 새만금항 인입철도 개설로 인한 철도 여건변화에 맞춰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신철도 건설과 폐철도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철도, 트램, 군산역사, 경관, 조정,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과지역 주민 의견 등은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고 영상자료 등을 통해 전문가 관계부서와 다양한 의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내용은 새만금과 군산을 중심으로 한 철도 환경이 급변화함에 따라 신철도~폐철도 간 도심 발전 연계, 군산의 역사와 특색이 담긴 철도 콘텐츠 제공 등 새만금 배후 도시 존재감을 강화시키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문화가 있는 숲'
여산면 수은마을 등 조성

익산시는 문화와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있는 숲'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익산시는 총 사업비 2억8,000만원(국비1억4,000만원, 도비4,200만원, 시비 9,800만원)을 투입해 문화가 있는 숲을 조성한다.

이 숲은 여산면 수은마을 앞 공터(여산면 두여리 272-1번지 일원), 황동면 석제품 전사홍보관, 용포면 금강자연거길 인접산림(용포면 대봉암리 산18번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부지는 생활권 주변과 관광지 등으로 선정됐다.

시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색 있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나선다.

이 공간에는 서부해당, 미니배롱, 동백, 공작단풍, 은목서 등 계절별로 꽃이 피거나 향기를 내고 단풍이 지는 수종이 식재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